

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자 간담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성료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이우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위원장이 참석하여,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후보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책임자라고 평가하였다.

이우중 위원장은 “이북5도 무형유산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그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는 앞으로도 무형유산 전승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